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설립한국계육협회(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3권 제5호 통권23호

5

1997

우리 양계인들에게 드리는 제언

우리나라 축산이 현대화의 기틀을 시작한 지난 '60년대 말 아래 거의 최근까지도 축산식품의 위생에 관한 문제는 관계, 학계 및 업계를 망라하여 어느 분야에서도 거의 완전한 금기 사항으로 인식되어 이들 문제에 관한 언급조차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간 간혹 이들 축산식품의 위생과 관련된 연구 결과나 문제점 등이 신문, 방송은 말할 것도 없이 천문 학술지에 다루어질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매국노와 같은 원성과 지탄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직장마저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 축산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난해 10월 하순의 방송 및 신문지상을 통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살모넬라 오염」에 관한 보도로 인한 필자 및 담당자의 당시 곤혹스러움은 당연히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보도 경위야 어떠하였던 우리 국내 양계농가들의 심적 및 물적인 부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번 지면을 통하여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1개월 후면 시작되는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완전 수입 개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래 지난 수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계 특히 양계업계는 명실상부한 국제 경쟁력 고양을 위한 어떠한 자구책을 강구해 왔는지를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양계 선진국의 경우 양계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에 대한 방제대책 마련은 물론 각계 관련 분야들의 합심된 노력에 힘입어 그 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또한 오랫동안 축산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보다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생산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질병 발생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주요 가금 전염병이 모두 침입하여 발생한 바 있으며 오늘 현재도 이들 질병중 어느 한가지도 근절됨이 없이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 그 피해가 급증하므로서, 국민 1인당 연간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제국들과 비교하여도 방역의 수준과 축산의 생산성은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생 문제 측면에서도 양계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사료로부터 시작하여 종계, 부화, 실용계 및 도계 등 양계생산의 각 과정별 그리고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 까지 살모넬라를 비롯하여 포도상구균, 캠필로백타, 리스테리아 및 기타 사람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각종 병원균들의 제거를 위한 장기발전 방안이 설립되어 거국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 최근에는 이와같이 오늘날의 축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축의 방역과 축산물의 위생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역분야에 있어서는 뉴캣슬병을 비롯하여 추백리 등 닭에서 피해가 많은 수종의 질병을 개별로 선정하여 완전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생분야에서는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HACCP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축산, 특히 양계에 있어서 각각의 관련 분야의 양적발전은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방역과 위생 등에 관한 질적 발전을 위한 우리 양계인들의 현실감각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국내 양계 업계의 의지력과 부단한 노력이 우리 양계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가장 절실향하고 하겠으며, 이 길만이 우리 국내의 양계업이 국제적인 경쟁 대열에서 낙오됨이 없이 세계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서는 선두주자가 되어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
본회 자문위원

김기석 박사